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ol. 22, No. 2, 2011

어린시절 집에 대한 장소애착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lace Attachment to Childhood Home to the Housing Satisfaction

최병숙* 김석경**
Choi, Byung-Sook Kim, Suk-Kyung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significant factors explaining college students' place attachment to their childhood homes, developed the scale of that, and proposed statistically significant models to explain their place attachment to those home environments.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with 32 items. Responses from 358 Michigan State University students were analyzed statistically. From the explan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31 items under 4 valid factors named Place dependence, Affection, Rootedness, and Place identity were obtained. This study additionally adapted six types of place attachment to childhood homes from Hess (1997), and examined these types. Idealization (Type1), affection (Type3), and transcendence (Type5) were chosen most often. Finally,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s between housing satisfaction and (1) the four place attachment factors and (2) the six types of place attachment. Results showed the four place attachment factors were more strongly related with housing satisfaction.

Keywords : Place Attachment to Home, Scale of Place Attachment to Home Environmental Psychology, Childhood, College Students

주 요 어 : 장소애착, 장소애착 척도, 환경심리, 어린시절, 대학생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인간에게 어린시절의 삶은 성인기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드러난 빙산이 모든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인간이 표출하는 행동은 이면에 가려진 빙산과도 같이 잠재된 과거의 경험이나 무의식에 영향을 받고 있다. 즉, 어린시절의 경험은 인간에게 잠재하는 것으로, 일생 동안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한 예로 어린시절 부모와의 대인애착이 잘 형성되면, 성장이후 사회적 대인관계의 애착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송지영 · 박성연, 2010). 사람들은 공간을 계획할 때 자신에게 인상 깊었던 공간 이미지나 경험을 생각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시절의 경험이나 기억이 이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arcus, 1992). 이처럼 어린시절의 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나, 주거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이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되어왔다.

주거공간 계획에서 사용자 관점이 중시되면서 인간이 공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바를 이해하고 나아가 감정을 이해하고자 함에 따라 90년대 이후 정서적 측면에 비중을 둔 장소애착 연구가 제시되었다. 장소애착은 "어떤 장소에 대해 인간이 갖는 감정 혹은 정서적 유대감" (Jorgensen & Stedman, 2006; Kelly & Hosking에서 재인용, 2008; Low & Altman, 1992)을 의미한다. 장소애착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다차원적 개념을 지닌 척도로 측정되었고(Jorgensen & Stedman, 2006; Stedamn, 2002), 일부 연구에서 청소년 및 대학생(Chow & Healey, 2008; Dallago, et al., 2009; Pretty, Chipuer & Bramston, 2003) 그리고 노인(Fogel, 1992; Mustchler, 1992; Sixsmith, 1986; Sixsmith & Sixsmith, 1991)까지 확대하여 진행되었다. 그 외 아동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최근 Hess(1997)와 이진숙 · 최병숙 · 한지현 · 한영숙(2009)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장소애착 연구가 어린시절 경험한 장소로 확대하여 다루진 것은 대인애착 및 아동기 경험의 영향성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어린시절 형성된 장소애착은 인간발달 전 과정에서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최병숙 · 이진숙 · 한영숙, 2010; Hess, 1997). 이에 아동기 장소애착을 일상생활의 일차공간인 집을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장소애착 이론의 확대를 위하여 주거만족도 이론과 접목하여 한 단계 발전시키는 연구도 필요하다. 집에 대한 장소애착이 집을 중심으로 한 정서적 유대감을 나타내고, 주거만족도는 주거환경을 평가하는 감정적 측면을 나타낸다. 이에 정서적 유대감과 감정적인 평가 사이

*정회원(주저자,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부교수 & 인간생활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정회원, Assistant Professor in Interior Design, School of Planning, Design and Construction, MSU.

이 논문은 2008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 지를 밝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한 기존 연구를 한층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제까지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객관적 차원의 거주자 및 주거환경 특성 그리고 주거에 대한 거주자의 지각 및 인지적 측면으로 밝혀졌고, 특히 지각 · 인지적 측면에서 장소애착의 영향력을 다룬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장소애착과 주거만족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은 주거이론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필요하다.

2. 연구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시절 집에 대한 장소애착을 미국 미시간의 대학생 자료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주거만족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아동기 장소애착 척도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나아가 장소애착을 주거만족도 이론과 연계 확대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첫째, 선행연구의 척도[1]를 기준으로 어린시절 집에 대한 장소애착 척도를 발전시키고, 장소애착이 어떠한 요인을 갖는지 파악한다. 둘째, Hess (1997)연구에서 제시된 어린시절 집에 대한 장소애착의 유형이 미국 대학생의 경우 어떠한지를 파악한다. 셋째, 어린시절 집에 대한 장소애착 요인 및 장소애착 유형과 주거만족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그리고 어떠한 장소애착 요인 및 유형이 주거만족도에 영향력을 갖는지 파악하여, 장소애착을 통해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를 모색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아동기 장소애착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은 특정한 장소 혹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이다. 이는 환경심리학 분야에서 1960년대 이후 다루어져 왔으나, 1980년대말 부터 연구의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어 공간행태학에서도 다루어졌다. 장소애착은 단일 차원의 개념보다 정서성 혹은 애정성(affection),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 장소의존성(place dependence), 착근성(rootedness)의 다차원적인 하위개념들로 구성된다(Harris, Brown & Wener, 1996; Jorgensen & Stedman, 2006; Kyle, Graefe, Manning & Bacon, 2004; Kyle, Mowen & Tarrant, 2004; Schereyer, Jacob & White, 1981; Stedman, 2002; Williams & Roggenbuk, 1989; Williams & Vaske, 2003). 최근에는 사회관계(social bonding)까지 장소애착의 하위개념으로 포함시키기도 하며(Kyle, Mowen, & Tarrant, 2004), 집에 대한 장소애착을 다룬 경우는 주거경험(home experience)의 개념까지도 다룬다(Harris, Brown & Werner, 1996). 이들 연구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장소애착 개념을 정립하였고, 아동기 장소애착 개념을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물다(이진숙 · 최병숙 · 한지현 · 한영숙, 2009; Hess, 1997). 국내 아동기 장소애착 연구는 기존 국외 성인대상 장소애착 연구들과 달리 정서성, 장소정체성, 착근성, 장소의존성에 놀이성이 추가되었다(이진숙 · 최병숙 · 한지현 · 한영숙, 2009). 반면 국외 Hess(1997) 연구에서는 아동기 장소애착을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는 Chawla(1992)의 아동기 장소애착에 대한 4가지 유형, 즉, 이상화(idealization), 애정(affection), 초월성(transcendence), 고통/양가감정(ambivalence)에 부정적 감정의 슬픔(mourning)과 회피(dismissal)를 추가한 것이다. 이처럼 아동기 장소애착은 다차원의 하위 개념을 갖는 척도로 측정하는 접근과 몇 가지 유형의 종류로 구분한 것이 있다. 이 두 가지의 장소애착 측정 척도 중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을 연구하는데 적합한 방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장소애착과 주거만족도

장소애착은 개념 정립에서 나아가 주거현상을 설명하는 차원으로 그 이론적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즉, 공간행태를 결정짓는데 있어서 장소애착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장소애착에 프라이버시, 주거의 질, 선호 등이 관련되고(Harris, Brown, & Werner, 1996), 개조행동이 대인관계나 장소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ieneke & Weenig, 2010; Wells, 2005). 그리고 이사횟수와 거주년수가 장소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열, 임하경, 2005; Billig, 2006; Bonaiuto, Aiello, Perugini & Ercolani, 1999; Hernández, Hidalgo, Salazar-Laplace & Hess, 2007; Kelly & Hosking, 2008; Knez, 2005; Vorkinn & Riese, 2001).

주거이론에서 주거만족도는 주거환경을 평가하는 감정적 측면으로 다루어지고 있다(Weideman & Anderson, 1985(이경희 · 김대년 · 홍형옥 · 서승희 공역, 1995 재인용)). 즉, 주거의 질이나 선호를 판단하는 평가에서 주거만족도가 다루어졌다(이영행 · 최민섭, 2009). 그리고 주거만족도는 거주후 평가를 다루는 하나의 측정척도로 다루어지고 있다(안진숙 · 최병숙, 2007; 장한두, 2008; 최상동 · 정진수, 2008; Preiser, Rabinowitz & White, 1990). 즉, 주거만족도는 거주자가 주거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통해 주거를 평가한다는 개념이다. 주거만족도의 초기 이론은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결정 요인에는 거주자의 객관적 특성, 주거환경의 객관적 특성, 주거환경에 대한 거주자의 인지가 이에 속하며, 이들 세 가지 특성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혹은 서로 관계를 갖는 구조로 주거만족도에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만족도는 Winter & Morris(한국주거학연구회, 2005 재인용)에 따르면 주거결함 개념과 연계되어 이사나 개조 행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

1) 최병숙 · 이진숙 · 한영숙(2010)과 이진숙 · 최병숙 · 한지현 · 한영숙(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장소애착 척도임.

었고, 피쉬바인과 아젠(이경희 · 김대년 · 홍형옥 · 서승희 공역, 1995 재인용)은 주거만족이 이사 행동에 직접적인 관계를 갖기보다 이사 행동의도가 주거만족과 행동을 매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주거만족도는 이사나 개조의 주거행동과 매개관계를 갖고, 이사나 개조의 주거행동은 장소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소애착은 거주자가 공간에 대해 갖는 정서적 유대감이고, 주거만족도는 주거환경을 평가하는 감정적 측면이다. 주거만족도와 장소애착 모두 주거에 대한 지각·인지적 측면을 다루는 것이고, 주거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장소애착은 주로 환경심리학 분야 연구에서, 주거만족도는 주거학 분야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주제이다. 하지만 인간의 주거공간에 대한 지각 · 인지적 측면을 파악하려는 것은 두 개념이 유사하다. 따라서 유사한 두 개념의 관련성을 다루어 장소애착과 주거만족도와도 관계 모델을 파악하고자 하며, 그럼으로써 장소애착 이론 뿐 아니라 주거만족도 이론의 확대 방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 방법

1. 측정도구

장소애착은 선행연구(Harris, Brown & Werner, 1996; Jorgensen & Stedman, 2006; Kyle, Mowen & Tarrant, 2004; Molcar, 2006; Stedman, 2002)를 근거로 집에 대한 장소애착 척도를 발전시킨 최병숙 · 이진숙 · 한영숙(2010)과 이진숙 · 최병숙 · 한지현 · 한영숙(2009) 연구에 사용된 척도[2]를 적용하였다. 선행연구 중에서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 32개 항목을 최종 선정하였다. 측정 척도의 영문 적용과정에서는 미국의 관련 학과 교수 2인의 검토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영문 표현은 영어교정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측정방법은 5점 리커르트척도를 적용하여 '나에게 전혀 해당사항 없음(not at all true of myself)'은 1점, '전적으로 나에 대한 사항임(completely true of myself)'은 5점으로 정하여 총 5단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어린시절 집에 대한 장소애착 유형은 Hess(1997) 연구의 6가지유형을 적용하였으며, 이 역시 5점 리커르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응답자의 장소애착 유형을 선택하는 문항은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주거만족도는 단일문항으로 파악하였으며, 5점 리커르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아동기 집은 12세 이하 어린시절 살았던 집을 중심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여러 번의 이사 경험이 있는 경우는 가장 기억에 남는 집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외 설문지[3]에는 응답자의 배경적 사항으로 성별, 연령, 학년, 전공, 아동기 거주지역, 아동기 이사 여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조사지역은 연구자의 지리적 접근으로 조사가 가능한 미시간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대학생[4]을 선정하기 위하여 미시간주의 여러 대학 중 수도인 랜싱에 위치한 주립대학을 대표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 조사대상의 선정은 연구자가 미시간주립대학 교수에게 이메일 혹은 전화로 협조를 구하였다. 협조의사를 밝힌 교수에게 연구의 배경을 설명하고 자료수집 절차를 설명하였으며, 수업시간을 할애하여 조사를 허락한 경우 대학생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9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실시하였다. 교수와 약속한 수업시간에 연구자가 방문을 하여 학생들에게 설문조사 설명서[5]를 나누어 준 후, 연구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본 설문조사는 학생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참여하는 것임을 명시하였다.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71명의 학생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대학원생을 제외한 35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탐색적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하였고,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요인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아직 한국에서 장소애착 이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장소애착 요인을 탐색하는 요인분석을 하였다.

2) 선행연구를 근거로 주거경험(home experience), 착근성(rootedness), 정서성(affection),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 장소의존성(place dependence)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장소애착의 측정항목은 36개로 구성하였다. 항목의 선정은 Harris, Brown & Werner(1996)의 연구에서 주거경험(home experience), 착근성(rootedness),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개념의 장소애착 측정항목 23개 중 만족항목을 제외한 22개 항목을 선정하였고, Stedman(2002)의 연구에서는 9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Kyle, Mowen & Tarrant(2004)의 연구에서는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 장소의존성(place dependence), 애착성(affective attachment)의 세 가지 개념에서 11개 항목을 선정하였고, Jorgensen & Stedman(2006)의 연구에서는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 장소의존성(place dependence),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의 개념에서 12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Molcar(2006)의 연구에서 10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제시된 중복된 항목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아동기는 정체감 형성 시기가 아니므로, 정체감 관련 항목은 제외하여 선정하였다(최병숙 · 이진숙 · 한영숙, 2010).

3)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미시간 주립대(Michigan State University)의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로 부터 2009년 4월 승인을 받았다. IRB 승인과정은 위원회에서 설문내용과 설문조사방법이 연구목적에 부합하는지와 응답자에게 설문지로 윤리적 피해를 주는 부분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실시 전 승인이 필요한 것이었다.

4) 본 연구이외 지속적으로 장소애착 척도를 발전시키고 일반화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므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 미국 등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실증적 조사를 통해 척도를 일반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한 이유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으나, 외국에서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면서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신을 중심으로 집에 대한 장소애착이 형성된다.

5) 설문조사에서 설문지를 배포하기 전에 설문조사 설명서를 나누어 주고 학생이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이해하였다는 의미로 IRB에서는 설명서를 학생이 보관하도록 하여, 설명서는 회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해서 검증됨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장소애착 요인의 척도구성과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Jorgensen & Stedman, 2001).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응답자 일반사항

응답자의 인구학적 사항을 파악한 결과<표 1>, 남학생 29.1%, 여학생 70.9%로 여학생의 설문 응답 비율이 남학생 보다 2배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 학생의 비율은 1학년이 3.4%로 가장 낮았고, 2학년이 24.3%, 3학년이 34.4%, 4학년이 38.0% 이었다. 응답 학생의 전공은 인테리어디자인 전공자가 36.9%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가족, 아동학 전공자가 16.5%, 조경 및 도시계획 전공자가 15.6%, 건설공학 전공자가 11.7% 이었다. 인테리어 디자인 전공 학생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은 연구자 소속이 인테리어디자인 전공이므로 설문조사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진 결과였다.

표 1. 응답자 일반 사항

변인	항목	빈도(%)
성 별 (n=358)	남	104(29.1)
	여	254(70.9)
학 년 (n=358)	1학년	12(3.4)
	2학년	87(24.3)
	3학년	123(34.4)
	4학년	136(38.0)
전 공 (n=358)	가족/아동	59(16.5)
	인테리어 디자인	132(36.9)
	건설공학	42(11.7)
	조경/도시계획	56(15.6)
	기타	69(19.3)
12세까지 거주 지역 (n=330)	소도시/도시	82(24.8)
	전원도시	179(54.2)
	농촌	67(20.3)
	기타	2(.6)
13세 이전 이사 경험 (n=334)	있음	195(58.4)
	없음	139(41.6)
이사할 때의 기분 (n=190)	매우 아쉽다	23(12.1)
	약간 아쉽다	36(18.9)
	그저 그렇다	72(37.9)
	약간 설레다	30(15.8)
	많이 설레다	29(15.3)

한편 응답 학생의 아동기 장소애착을 설명하는 데 배경적 사항이 되는 거주 장소와 이사경험에 대해 파악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이상 54.2%가 교외 전원도시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 거주는 24.8%와 농촌 거주는 20.3%로 나타났다. 아동기에 이사경험이 있는 경우는 58.4%로 나타났고, 이사 당시 느낌은 그저 그렇다(37.9%)의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평균값 역시 3.03점으로 어린시절 이사하는 것에 대해 좋은 감정이나 나쁜 감정을 갖는 지의 경향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2.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의 요인

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선정한 아동기 장소애착 측정항목 32개를 요인 분석한 결과, '나는 어릴 적 살던 집과 동네에 대해 정서적으로 거의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낀다(I had little, if any, emotional attachment to my house and its setting/interior amenities)'의 공통성(communality)이 .284로 .500 보다 낮아 제외하였다. 그리고 다시 요인분석을 한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31개 항목이 4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아동기 장소애착의 4개의 요인구조는 70.3%의 설명력을 가지며, KMO와 Bartlett의 검정결과 KMO값이 .96으로 .90을 초과하여 요인분석 결과의 적정함이 입증되었다.

측정항목12는 요인1, 요인2 분류가 모호하고, 측정항목10과 11의 경우도 요인분류가 명료하지 않았다. 이에 요인부하값 .6을 기준으로 한 결과 5개 항목이 제외된 26개 항목으로 4개의 요인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표 2, 색칠부분 참조>. 각각의 요인은 선행연구(최병숙・이진숙・한영숙, 2010; Harris, Brown & Werner, 1996; Jorgensen & Stedman, 2006; Kyle, Mowen & Tarrant, 2004; Molcar, 2006; Stedman, 2002)에서 사용된 장소애착의 하위개념 명칭을 고려하여, 장소의존성(place dependence), 애정성(affection), 착근성(rootedness),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으로 명명하였다. 요인1의 장소의존성은 어느 곳보다 어린시절 집을 좋아하는 장소, 머무르고 싶은 장소, 다른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장소, 놀이를 위한 최상의 장소로 생각하는 내용이었다. 요인2의 애정성은 어린시절 집의 반기는 느낌, 보금자리, 편히 쉬는 곳, 안정감을 느끼는 내용이었다. 요인3의 착근성은 집과 연결된 느낌, 떠났을 때 그리움, 큰 의미가 있음, 소속감의 내용이었다. 요인4의 장소정체성은 집안의 장식이나 소유물에서 집안의 역사, 가족, 나를 느낀다는 내용이었다.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결과에서 추출된 26개 항목의 4개 요인구조를 검증하여 장소애착의 하위개념을 보다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아동기 장소애착은 4개 요인구조가 적합하다는 것이 재검증되었다[6].

아동기 장소애착은 4개의 요인개념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 카이값으로 볼 때는 적절치 않으나, 카이값은 표본의 수가 커서 발생한 것이므로 다른 적합지수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다른 적합지수로 결과를 판단해 볼 때 TLI와 CFI는 0.9 이상으로 우

6)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모델의 적합도 판정은 χ^2 값 및 그 외 적합지수(CFI 또는 TLI, SRMR, RMSEA)를 적용하고 있다. 카이값은 표본 크기가 커지면 값이 커지므로, 유의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이에 다른 적합지수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를 평가하게 된다. 이때 CFI, TLI는 0.9이상이면 우수하고, RESEA는 .05-.08의 범위에 있을 때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배병렬, 2009, pp 255-260).

표 2. 아동기 집의 장소애착 척도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결과[a]

측정항목	성분(component)			
	1	2	3	4
요인1 명명: 장소의존성(Place Dependence, PD)				
1. 다른 어떤 곳 보다 우리 집에 가는 것이 좋았다. I enjoyed going to my house more than any other site	.788	.210	.237	.197
2.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면 우리 집 이외 다른 어느 곳도 생각할 수 없었다. For what I like to do, I could not imagine anything better than the setting/interior amenities provided by my house.	.787	.213	.179	.265
3. 우리 집은 내기 머무르기 좋은 곳이었다. My house was my favorite place to be.	.764	.198	.377	.120
4. 내가 무언가를 하기에 집이 최상이었으며, 다른 어떤 곳도 우리 집과 비교할 수 없다. For the things I enjoyed most, no other place could compare.	.762	.164	.326	.204
5. 집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다. As far as I am concerned, my house is no better than other places.	.762	.207	.362	.161
6. 놀이를 위해서는 다른 어떤 곳보다 우리 집이 좋았다. I preferred my house over others' setting/interior amenities for play activities that I enjoyed most.	.714	.270	.160	.253
7. 놀이를 위한 최상의 장소는 우리 집이었다. For play activities that I enjoy most, the setting/interior amenities provided by house were the best.	.712	.316	.199	.226
8. 우리 집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였다. It was the best place to do the things I enjoyed.	.672	.319	.324	.189
9. 어린 시절 집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었다. I felt happiest when I was at my house.	.609	.329	.453	.112
10.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나를 표현했다. Everything about my house was a reflection of me.	.560	.111	.336	.458
11. 친구들을 초대하는 곳으로 우리 집이 좋았다. My house was a good place to entertain friends.	.557	.461	.081	.074
12. 우리 집은 모든 것을 잊고 지낼 수 있는 곳이었다. My house was a good place to get away from it all.	.539	.503	.231	.176
요인2 명명: 애정성(Affection, AF)				
13. 집은 항상 나를 반겨주던 느낌이었다. I always felt welcomed in my house.	.174	.814	.194	.171
14. 우리 가족은 우리 집을 따뜻한 보금자리로 느끼도록 만들었다. Family made my house feel like a home.	.198	.782	.302	.125
15. 우리 집은 내가 편히 쉴 수 있었던 장소였다. My house was a place I could relax.	.227	.761	.218	.154
16. 나는 집에서 매우 안정감을 느꼈다. I felt secure in my house.	.263	.742	.185	,240
17. 나는 집에서 무언가 하는 것을 좋아했다. I enjoyed the things I did in my house.	.333	.728	.226	.202
18. 집에 있을 때 진정한 내가 된다고 느꼈다. I felt that I could really be myself in my house.	.202	.715	.171	.217
19. 우리 집은 내게 따뜻한 보금자리로 느껴졌다. I felt my house was a home to me.	.222	.684	.305	.286
20. 우리 집에서 놀이를 즐겼다. I enjoyed the opportunities for play activities in my house.	.409	.462	.292	.296
요인3 명명: 착근성(Rootedness, RT)				
21. 나는 어릴 적 살던 집에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I felt attached to my house.	.254	.277	.811	.199
22. 이사를 했다면 우리 집을 그리워했을 것이다. I would miss my house if I moved out.	.271	.303	.779	.143
23. 이사를 해야만 했다면,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If I had to move, I would feel bad.	.315	.219	.772	.092
24. 어릴 적 살던 집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 House meant a lot to me.	.280	.311	.752	.279
25. 오랫동안 집을 떠났을 때, 정말 집이 그리웠다. I really missed it when I was away too long.	.405	.248	.632	.191
26. 나는 어릴 적 살던 집에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I felt a strong sense of belonging to my house and its setting/interior amenities.	.292	.350	.615	.344
27. 우리 집은 내 존재감의 중요한 일부이었다. My house was an important part of who I am.	.348	.126	.479	.395
요인4 명명: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 PI)				
28.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은 집안의 역사를 갖는 것이었다. Possessions in my house provided connections to my past.	.106	.339	.161	.754
29. 어릴 적 우리 집의 장식은 가족을 생각나게 했다. Decoration in my house reminded me of family/friends.	.212	.315	.210	.736
30. 어릴 적 우리 집의 장식은 나를 나타냈다. Decoration in my house helped express who I was.	.438	.191	.144	.677
31. 어릴 적 집에서 했던 일들은 나의 한 부분이었다. Working on my house made it part of me.	.277	.202	.249	.630
아이겐 값(Eigen value)	8.14	6.07	4.43	3.30
설명 변량(%)	23.6	19.3	16.4	11.0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Kaiser정규화가 있는 배리맥스
a. 6번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음

수하다로 판단되었고, RMSEA는 적정범위에 있으므로 장소애착을 4개의 요인개념 구조로 측정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개념타당도와 AVE(평균분산추출값)로 판단해 보아도, 개념타당도가 0.7 이상이고, AVE가 0.5 이상이므로 장소의존성, 애정성, 착근성, 장소정체성의 각 개념 측정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장소애착 요인분석의 결과 해석 및 논의

연구 결과에서는 파악된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척도를 구성한 4개요인은 선행연구(Harris, Brown & Werner, 1996; Jorgensen & Stedman, 2006; Kyle, Mowen & Tarrant, 2004; Molcar, 2006; Stedman, 2002)를 바탕으로 주거경험, 애정성, 착근성,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의 개념

표 3.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변수/ 측정 항목	Standardized Estimate	Estimate	S.E.	C.R.	Construct reliability (AVE)*
장소 의존성					.878
PD1	.853	.914	.041	22.307	(.714)
PD2	.841	.921	.043	21.649	
PD3	.875	.977	.042	23.482	
PD4	.860	.950	.042	22.667	
PD5	.878	1.000			
PD6	.776	.808	.043	18.686	
PD7	.795	.794	.041	19.530	
PD8	.912	.824	.041	20.226	
PD9	.808	.864	.043	20.099	
애정성					.831
AF13	.850	.921	.049	18.915	(.662)
AF14	.833	.873	.048	18.357	
AF15	.811	1.000			
AF16	.814	.929	.052	17.747	
AF17	.829	.914	.050	18.235	
AF18	.755	.968	.060	15.999	
AF19	.798	.956	.055	17.264	
착근성					.819
RT21	.899	1.000			(.715)
RT22	.859	.978	.042	23.470	
RT23	.824	.996	.046	21.435	
RT24	.912	.983	.036	27.044	
RT25	.756	.835	.046	18.307	
RT26	.815	.867	.041	21.035	
장소 정체성					.710
PI28	.760	.869	.063	13.895	(.576)
PI29	.816	.963	.065	14.901	
PI30	.754	1.000			
PI31	.702	.926	.072	12.780	

χ^2 (df=293, p<.001)= 1005.370
RMSEA= .08, TLI= .90, CFI= .91

*배병렬(2009) 제안에 따라 Hair 외(2006) 방식의 AVE로 계산함

에서 작성되었으며, 결과 역시 같았다. Harris, Brown & Werner(1996) 연구에서 주거경험으로 파악된 내용이 본 연구에서는 집의 본질적 의미즉, 머무름과 안정, 휴식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장소의존성과 애정성으로 파악되었고, 집과 연결, 소속감, 그리움의 착근성은 같았다. Jorgensen & Stedman(2006), Molcar(2006) 그리고 Stedman(2002) 연구에서의 애정성, 장소정체성은 본 연구에서도 같았다. 이들 선행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긴 하지만, 장소애착은 애정성,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의 세 가지 개념을 보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대학생의 아동기 장소애착을 연구한 이진숙・최병숙・한지현・한영숙의 연구(2009)에서도 정서성,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착근성의 개념이 제시되었고, 놀이성의 추가 하위개념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장소애착에서 보편적으로 제시되는 4개의 하위개념이 파악되었고,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아동기 장소애착(이진숙・최병숙・한지현・한영숙, 2009)에서는 놀이성이 구분된 5개 하위개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놀이성 측정 항목들이 장소의존성에 포함되어 나타났다. 장소의존성이 집을 머무르는 장소, 활동을 지원하는 장소, 좋아하는 장소로 볼 때, 집을 놀이 활동의 장소로 본 놀이성이 장소의존성에 포함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아동기의 장소애착을 파악하기 때문에 놀이 관련 항목이 측정되었고, 이는 아동기 행동 특성이 장소의존성에 반영되어 분류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척도 역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성인용 척도를 구성하는 애정성,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착근성의 4개 요인과 같다.

3.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유형

1) 장소애착 유형

Chawla(1992)는 성인기 대인 애착의 개념에 기초하여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을 4개 유형으로 제시하였고, Hess(1997)는 Chawla 연구(1992)를 바탕으로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을 6개 유형으로 발전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Hess(1997)가 적용한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유형이 어떠한지 파악하였다<표 4>. 그 결과, 아동기에 살았던 집에 대한 애착으로는 유형1의 이상화(idealization)를 36.8%의 학생이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유형3의 애정(affection)을 22.6%가 선택하였다. 유형5의 초월성(transcendence)은 12.3%가 선택하였다. 자신의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파악한 결과, 긍정적 느낌의 유형1이나 유형3, 유형5에 속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71.7%를 차지하였다. 즉, 아동기 집에 대해 좋고 기억나고 편안하며 무언가 연결되어 특별한 곳으로 인지하며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학생이 과반수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 보아도 유형1과 3은 점수 역시 보통(3점) 이상으로 파악되었고, 유형5는 보통보다 낮은 점수였다.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유형으로 유형2의 슬픔(mourning)은 6.6%의 학생이 선택하였고, 유형4의 회피, 망각(dismissal)은 16.0%의 학생이 선택하였다. 유형6의 고통, 양가감정(painful, ambivalence)은 5.7%의 학생이 선택하였다. <표 4>에서 보면 유형2는 2.70점, 유형4는 2.50점, 유형6은 1.87점으로, 집에 대한 긍정적 장소애착 유형1, 3, 5와 비교하면 그 점수가 낮았다. 대학생은 자신의 어릴 적 집에 대해 상처를 갖고 있거나 특별한 감정 없이 어린시절을 보낸 곳이라는 의미, 힘든 기억이 떠오르는 곳이라고 어린시절 집을 느낀 비율이 28.3%였다. 이와 같이 대학생들은 어린시절 집에 대한 애착으로 부정적 유형(28.3%)보다 긍정적 유형(71.7%)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표 4.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유형*

장소애착 유형	빈도 (%)	평균 (표준편차)
유형1(이상화, idealization). 나는 어릴 적 집에 대해 향수를 느낀다. 그 집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으며, 어려서 살던 집과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한다. I feel nostalgic thinking about my house. It was an ideal place. Sometimes I think no other place compares to it.	117 (36.8)	3.71 (1.16)
유형2(슬픔, mourning). 나는 어려서 살던 집이 정말 그립다. 하지만 그 기억 속에는 때때로 상처가 되는 것도 있다. I miss my house a great deal. Sometimes I think I've never gotten over having to leave. It feels like an unhealed wound.	21 (6.6)	2.70 (1.25)
유형3(애정, affection). 어떤 곳을 가면 어려서 살던 집이 기억나고, 그래서 그런 집에 가면 편안해 진다고 느낀다. Aspects of other places often remind me of my house. The resemblance brings me a sense of familiarity and comfort.	72 (22.6)	3.27 (1.10)
유형4(회피/망각, dismissal). 집은 내가 어린시절 혹은 청소년기를 보낸 장소에 불과했고, 쉽게 그 집을 떠났다. House was just a place where I spent part of my childhood and/or adolescence. When I left, I moved on.	51 (16.0)	2.50 (1.24)
유형5(초월성, transcendence). 나는 어릴 적 살던 집과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집은 특별한 곳이었다. I feel a spiritual connection to my house. I can feel this connection in other places, but house is a special place to me.	39 (12.3)	2.86 (1.32)
유형6(고통/양가감정, painful/ ambivalence). 나는 어릴 적 집을 자주 생각하지 않는다. 그 집을 생각하면 아주 힘든 기억이 떠오른다. I don't think about my house very often. Thinking about it brings back too many difficult memories.	18 (5.7)	1.87 (1.07)
계	318 (100.0)	

*출처: Hess, K. A. (1997)

2) 장소애착 유형 결과 해석 및 논의

연구결과에서 Hess의 6가지 장소애착 유형[7]이 파악되었으며, 조사대상 대학생들은 특히 유형1의 이상화, 유형3의 애정, 유형5의 초월성의 긍정적 애착유형을 많이 선택하였다. 이 세 가지 유형은 Chawla와 Hess가 공통적으로 적용한 장소애착 유형이었다. Hess만이 적용한 유형2(슬픔)는 특히 선택 사례가 적었다. Chawla의 장소애착 유형이 긍정적 측면에만 치우쳐 Hess가 부정적 유형을 추가하여 애착유형을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결과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은 긍정적 유형을 보다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차후 Hess의 장소애착 유형을 적용할 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집에 대한 6가지 장소애착 유형에서 이상화(유형1), 애정(유형3), 초월성(유형5), 고통/양가감정(유형6) 등의 4개 유형은 Chawla(1992)의 연구를 적용한 것이고, 슬픔(유형2)과 회피/망각(유형4)의 2개 유형은 Hess(1997)가 추가하여 적용한 장소애착 유형이다.

4. 아동기 집의 장소애착과 주거만족도 관계

1) 아동기 주거만족도

아동기 집에 대한 만족도는 '나는 거주하는 곳으로 우리 집에 만족했다. I felt satisfied with my house as a place to live.'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평균 4.18점으로 아동기 집에 대해 만족하였다. 즉, 조사대상 대학생들은 아동기의 집을 만족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동기 집에 대해 만족한다는 결과는 앞서 긍정적 애착유형의 점수가 부정적 애착유형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난 점으로 보아 타당한 결과로 판단된다.

2)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요인과 주거만족도

아동기 장소애착 요인이 주거만족도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를 다중 회귀분석한 결과 <표 5>로 제시되었다. 변수투입방식(stepwise)의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4개의 모형이 제시되었으나, <표 5>에서 제시된 4개 요인이 모두 고려된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모형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결정계수 R^2은 .635로써, 주거만족도와 장소애착요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은 63.5%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46.9, p<.001). 그리고 요인1 장소의존성, 요인2 애정성, 요인3 착근성, 요인4 장소정체성 모두 주거만족도를 설명하는데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시절 주거만족도과 관련된 장소애착 요인은 애정성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β=.558), 다음으로 장소의존성(β=.414), 착근성(β=.310), 장소정체성(β=.239)의 순으로 주거만족도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요인과 주거만족도의 다중회귀분석결과

장소애착 요인	주거만족도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계수β
상수	4.202	
요인2. 애정성	.564	.558***
요인1. 장소의존성	.418	.414***
요인3. 착근성	.314	.310***
요인4. 장소정체성	.241	.239***
R	.797	
R^2	.635	
F값	146.885***	

***p<.001

3)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유형과 주거만족도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유형이 주거만족도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를 다중 회귀분석으로 파악한 결과 3개의 모형이 제시되었으나, 그 중 세 가지 장소애착 유형이 고려된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표 6>. 모형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결정계수인 R^2은 .305로써, 주거만족도와 집에 대한 장소애착 유형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은 30.5%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F=52.5, p<.001). 애착유형1(이상화), 애착유형6(고통/양가감정), 애착유형3(애정)은 주거만족도의 영향력를 설명하는 데 있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시절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집에 대한 애착유형은 이상화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β=.298), 다음으로는 고통, 양가감정(β= –.284), 그리고 애정(β=.171)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고통, 양가감정은 음의 값이므로 주거만족도에 부정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유형과 주거만족도의 다중 회귀분석결과

장소애착 유형	주거만족도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계수β
상수	3.208	
애착유형1. 이상화	.262	.298***
애착유형6. 고통/양가감정	-.265	-.284***
애착유형3. 애정	.156	.171***
R	.552	
R^2	.305	
F값	52.5***	

***p<.001

4) 장소애착과 주거만족도 관련성 결과해석 및 논의

이상에서 아동기 장소애착 요인 및 집에 대한 장소애착 유형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장소애착 요인과 주거만족도의 관계 모형(R^2=.635)이 집에 대한 애착 유형과 주거만족도의 관계 모형(R^2=.305)보다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소애착 요인과 장소애착 유형 중 주거만족도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모형은 장소애착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장소애착 요인의 애정성은 환영, 휴식, 진정한 집의 느낌 등의 내용으로 집에 대한 장소애착 유형3의 애정을 나타낸 편안함과 다소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장소애착 요인의 장소의존성은 집을 좋아하며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의 의미를 지니므로 집에 대한 장소애착 유형1의 이상화와 유사하다. 이처럼 장소애착 요인과 장소애착 유형의 유사한 측면을 검토해 보면, 장소애착 요인이나 장소애착 유형에서 애정성/애정 혹은 장소의존성/이상화의 측면은 주거만족도에 영향력이 있다. 즉, 집에 대해 좋거나 편안한 감정을 갖는 것은 아동기 주거만족도와 관련이 있으며 긍정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물론 아동기 집을 그리워하는 장소착근성과 응답자 자신을 표현하는 장소정체성의 장소애착 요인도 주거만족도에 긍정적 영향력을 갖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아동기 집에 대해 고통, 양가감정을 갖는 장소애착 유형의 감정은 주거만족도에 부정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소애착 유형 중 주거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유형1, 유형3, 유형6은 Chawla와 Hess 모두가 아동기 집에 적용한 장소애착 유형이었다.

또한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주거만족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거주자 특성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 혹은 주거환경 특성의 주거변인이 제시되었으나(Delgadillo & Erickson, 2006; Fang, 2006: Elsinga & Hoekstra, 2005),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집의 장소애착 즉, 집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도 주거만족도와 관련성이 있는 하나의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장소애착은 거주자의 주거에 대한 지각 · 인지적 측면을 나타내는 하나 특성으로 주거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이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보면 장소애착은 거주자 특성인 연령, 성별의 사회인구학적변인 그리고 거주년수 및 이사횟수 등의 주거특성 변인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고(Billig, 2006; Bonaiuto, Aiello, Perugini, & Ercolani, 1999; Hernández, Hidalgo, Salazar-Laplace, & Hess, 2007; Kelly, & Hosking, 2008; Knez, 2005; Vorkinn, & Riese, 2001), 장소애착과 주거만족도의 관련성도 본 연구에서 검증된 바, 주거변인, 장소애착, 주거만족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모델 구축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척도는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장소의존성, 애정성, 장소착근성, 장소정체성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장소애착 요인의 주거만족도 영향력은 매우 설명력이 높게 파악되었다. 특히 장소의존성, 애정성, 착근성, 장소정체성의 4개 요인으로 파악된 아동기 장소애착 요인은 주거만족도의 영향을 의미있게 설명한 변인이다. 따라서 4개 요인으로 아동기 장소애착 척도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둘째, Hess(1997)의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6가지 유형(이상화, 슬픔, 애정, 회피/망각, 초월성, 고통/양가감점)을 파악할 결과, 대학생들이 선택한 장소애착 유형은 그 분포가 고르지 못하였고, Chawla(1992)가 제시한 장소애착의 4가지 유형(이상화, 애정, 회피/망각, 초월성)을 높게 선택하였다. 그리고 Hess(1997)의 6가지 장소애착 유형 중 애정, 이상화, 고통/양가감정 유형이 주거만족도 설명에 매우 영향력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집에 대한 장소애착 요인 및 장소애착 유형과 주거만족도의 관련성을 파악한 결과, 요인과 유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주거만족도를 설명하였으나, 장소애착 요인의 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주거만족도와의 관련성으로 볼 때, 어린시절 집에 대한 감정을 파악하는 장소애착 척도는 장소애착 유형보다는 장소애착 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소애착 요인, 장소애착 유형 그리고 장소애착과 주거만족도의 관련성을 검토해 볼 때, 애정성/애정, 장소의존성/이상화의 감정이 요인과 유형에서 공통적 개념으로 주거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감정

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단순한 감정과는 달리 가족과 더불어 안정된 보금자리, 가장 머무르고 싶어 하는 감정에 대한 의미였다. 따라서 아동에게 집에 대한 애정과 장소의존성(이상화)을 느낄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 미시간주립 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이므로, 연구결과를 미국 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아동기 장소애착 척도는 미국의 제한된 조사대상을 통해 검증된 것이므로, 역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척도의 일반화를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주거만족도와 관련된 주거이론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인구학적변인 및 주거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장소애착 정도를 종속변인으로 한 주거만족도 매개변인과의 관계 모델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주거만족도는 전체를 파악하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므로, 주거만족도를 주거환경평가 차원의 척도로 발전시켜 장소애착과 관련성을 심도 있게 다루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송지영・박성연 (2010). 초등학교 아동의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이 남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3), 51-66.
2. 송지준 (2009).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서울: 21세기사.
3. 배병렬 (2009). Amos 17.0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제2판. 서울: 도서출판 청람.
4. 안진숙・최병숙 (2007). 고등학교 기숙사 주거시설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8(6), 93-101.
5. 이영행 ・ 최민섭 (2009). 1인 가구의 주거선택요인이 원룸 선호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7(2), 155-174.
6. 이진숙・최병숙・한지현・한영숙 (2009).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30(6), 549-566.
7. 장한두 (2010). 아파트 주민의 리모델링과 이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6(1), 185-196.
8. 장한두 (2008). 주거만족 영향 요인과 주거환경평가.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4(5), 11-21.
9. 주거학연구회 (2005). 넓게 보는 주거학. 교문사. 84-88.
10. 최상동・정진수 (2008). 저층집합주택단지의 주거환경요소에 따른 거주후 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4(12), 111-122.
11. 최 열・임하경 (2005). 장소애착 인지 및 결정요인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40(2), 53-64.
12. 최병숙・이진숙・한영숙 (2010). 대학생의 아동기 집과 현재 집에 대한 장소애착의 관련성. 한국생활과학회지, 19(5), 905-918.
13. Billig, M. (2006). Is my home my castle? Place attachment, risk perception, and religious faith. *Environment and Behavior, 38*(2), 248-265.
14. Bonaiuto, M., Aiello, A., Perugini, M., Bonnes, M. & Ercolani, A. P. (1999). Multidimentional percep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quality and neighbourhood attachment in the urban environ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9*, 331-352.
15. Brown, B., Perkins, D. D. & Brown, G. (2003). Place attachment in a revitalizing neighborhood: Individuals and block level of analysi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3, 259-271.
16. Brown, T. A. (2006).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applied research*. New York, NY: Gilford Press.
17. Chawla, L. (1992). Childhood place attachment. In I. Altman, & S. M. Low, (Eds), *Place attachment*(pp.63-85), New York, NY: Plenum Press.
18. Chow, K., & Healey, M. (2008). Place attachment and place identity: First-year undergraduates making the transition from home to universit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8*, 362-372
19. Dallago, L., Perkins, D.D., Santinello, M., Boyce, W., Molcho, M. & Morgan, A. (2009). Adolescent place attachment, social capital, and perceived safety: a comparison of 13 countri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4, 148-160.
20. Delgadillo, L., Erickson, L. V. (2006). Off-Campus Student Housing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98*(4), 5-9.
21. Elsinga, M. & Hoekstra, J. (2005). Home ownership and housing satisfaction.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20*, 401-424.
22. Fang, Y. (2006). Residential satisfaction, moving intention and moving behaviors: A study of redeveloped neighborhoods in inner-city Beijing. *Housing Studies, 21*(5), 671-694.
23. Fleury-Bahi, G., Félonneau, M. & Marchand, D. (2008). Processes of place identification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Environment and Behavior, 40*(5), 669-682.
24. Fogel, B. S. (1992). Psychological aspects of staying at home. *Generations, 16*, 15-19.
25. Harris, P. B., Brown, B. B., & Werner, C. M. (1996). Privacy regulation and place attachment: Predicting attachment to a student family housing facilit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6*, 287-301.
26. Hernández, B., Hidalgo, M. C., Salazar-Laplace, M. E. & Hess, S. (2007). Place attachment and place identity in natives and non-nativ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7*, 310-319.
27. Hess, K. A. (1997). Attachment to childhood place: A developmental perspectiv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CA.
28. Hidalgo, M. C. & Hernández, B. (2001). Place attachment: Conceptual and empirical quest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1*, 273-281.
29. Jorgensen, B. S. & Stedman, R. C. (2006). A comparative analysis of predictors of sense of place dimensions : Attachment to, dependence on, and identification with lakeshore properties.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9*, 316-327.
30. Kelly, G. & Hosking, K. (2008). Nonpermanent residents, place attachment, and “Sea Change” communities. *Environment and Behavior, 40*(4), 575-594.

31. Knez, I. (2005). Attachment and identity as related to a place and its perceived climat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5*, 207-218.
32. Kyle. G., Graefe, A. & Manning, R. (2005). Testing the dimensionality of place attachment in recreational settings. *Environment and Behavior, 37*(2), 153-177.
33. Kyle. G., Graefe, A., Manning, R. & Bacon. J. (2004). Effects of place attachment on users' perception of soci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atural setting.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4*, 213-225.
34. Kyle. G. T., Mowen, A. J. & Tarrant, M. (2004). Linking place preference with place meaning: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motivation and place attach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4*, 439-454.
35. Lane, S. & Kinsey, J. (1980). Housing tenure status and housing satisfaction. *The Journal of Consumer Afffairs, 14*(2), 341-365.
36. Low, S. M. & Altman, I. (1992). Place attachment: A conceptual inquiry. In I. Altman, & S. M. Low, (Eds), *Place attachment*(pp.1-12). New York, NY: Plenum Press.
37. Marcus, C. C. (1995). *House as a mirror of self: Exploring the deeper meaning of home*. Berkeley, CA: Conari Press.
38. Marcus, C. C. (1992). Environmental memories. In I. Altman, & S. M. Low, (Eds), *Place attachment*(pp.87-112), New York, NY: Plenum Press.
39. McAndrew, F. T. (1998). The measurement of 'ROOTNESS' and the prediction of attachment to home-tow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8*, 409-417.
40. Mieneke, W. H., Weenig, H. S.(2010). The impact of a refurbishment of two communal spaces in a care home on residents'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0*(4), 542-552
41. Molcar, C. C. (2006). The relationship of place attachment to spiritual well-being across the lifesp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ept. of Graduate Psychology, Seattle Pacific University. Seattle, WA.
42. Morris, E. W. & Winter, M. (1978). *Housing, Family, and Society*.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Inc.
43. Mutschler, P. H. (1992). Where elders live. *Generations, 16*, 7-14.
44. Pretty, G. H., Chipuer, H. M. & Bramston, P. (2003). Sense of place amongst adolescents and adults in two rural Australian towns: The discriminating features of place attachment, sense of community and place dependence in relation to place identit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3*, 273-287.
45. Preiser, Wolfgang F. E., Rabinowitz, H. Z., White, E. T. (1990). *Post-Occupancy Evaluation*.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46. Riley, R. B. (1992). Attachment to the ordinary landscape. In I. Altman, & S. M. Low, (Eds), *Place attachment* (pp.13-35), New York, NY: Plenum Press.
47. Schreyer, R., Jacob, G., & White, R. (1981). Environmental meaning as a determinant of spatial behavior in recreation. In *Proceedings of the applied geography conferences* (Vol. 4; pp. 294-300). Binghamton, NY: SUNY Binghamton.
48. Shumarker, S. A., & Taylor, R. B. (1983). Toward a clarification of people-place relationships: A model of attachment to place. In N. Feimer, and E.S. Geller (Eds.), *Environmental Psychology* (pp. 219-251). New York, NY: Praeger Publishers.
49. Sixsmith, J. A. (1986). The meaning of home: An exploratory study of environmental experienc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6*, 281-298.
50. Sixsmith, A. J., & Sixsmith, J. A. (1991). Transitions in home experiences in later life.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8,* 181-191.
51. Sinai, I. (2001). Moving or improving: Housing adjustment choice in Kumasi, Ghana. *Housing Studies, 16*(1), 97-114.
52. Stedman, R. C. (2002).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place: Predicting behavior from place-based cognitions, attitude, and identity. *Environment and Behavior, 34*(5), 561-581.
53. Vorkinn, M. & Riese, H. (2001). Environmental concern in a local context: The significance of place attachment. *Environment and Behavior, 33*(2), 249-263.
54. Wells, N. (2005). Our housing, our selves: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low-income women's participatory housing experienc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5*(2), 189-206.
55. Weidemann, S. & Anderson, J. R. (1985). Conceptual Framework for Residential Satisfaction. In I. Altman & C. M. Werner (Eds), *Home Environment* (pp. 113-132). 이경희・김대년・홍형옥・서승희 (공역). 주거만족을 위한 개념적인 틀, 주거환 환경 (pp. 126-143). 서울: 문운당.
56. Williams, D. R. & Vaske, J. J. (2003). The measurement of place attachement : Validity and generalizability of a psycholometric approach. *Forest Science, 49*(6), 830-840.
57. Williams, D. R., & Roggenbuk, J. W. (1989). Measuring place attachment: Some preliminary results. In L. H. McAvoy, & D. Howard (Eds), *Abstract of 1989 Leisure Research Symposium (p.32)*. Arlington, VA: National Recreation and Park Association.

접수일(2011. 1. 28)
수정일(1차: 2011. 3. 11)
게재확정일(2011. 4. 12)